

#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조은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벤처경영학과

## The Effect of Perceived Employability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diating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Eun-Hee Cho

Department of Ventur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고용가능성 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G도 소재 2-3년제 전문대학 재학생 182명이며, 자료 수집을 위해 2023년 12월 8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통계,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했으며, Bootstrapping을 통해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고용가능성 인식의 하위 요인인 내적 고용가능성과 외적 고용가능성 인식,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둘째, 내적 및 외적 고용가능성 인식은 모두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진로준비행동에 대해서는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외적 고용가능성 인식은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셋째, 전문대학생의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부분매개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전공만족도의 증진을 위한 대학의 다양한 취업지원 방안 및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perceived employabil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employabil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participants were 182 students from 2-3-year colleges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8<sup>th</sup> to 23<sup>rd</sup> December 2023. The SPSS 26.0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which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significance of indirect effects was verified through bootstrapping. The results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cond, in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but ex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was significantly partially mediated by satisfaction with the major. It is thus necessary to focus on in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to enha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and various employment support measures and programs are required to enhance satisfaction with the major.

**Keywords** : Perceived Employability, In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Ex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jor Satisfaction, College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Eun-Hee Cho(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email: 9820547@naver.com

Received February 19, 2024

Accepted May 3, 2024

Revised March 25, 2024

Published May 31, 2024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잘 결정하고 만족스러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 조건 중 하나이다. 특히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로 전환 시기에 있는 대학생이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체계적인 진로준비를 시작하는 행위는 예비사회인으로서의 초석을 세운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1]. 그러나 경기 둔화로 인한 취업난의 장기화 등으로 대학생은 진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청년층이 2023년 1월~10월까지 월평균 41만 명에 달했고, '2년' 넘게 쉬었다는 청년도 10만 명에 육박하였다[2]. 심각한 취업난은 불안정한 일자리로의 진입을 결정하게 되고, 잘못된 진로결정에서 오는 일자리 불일치(job mismatch) 등의 과정을 거쳐 조기 퇴사, 이직 등 개인의 진로와 경력개발의 어려움을 야기한다[3,4]. 따라서 대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위해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진로준비행동이란 실제적·구체적 차원으로서 진로준비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5]. 대학생이 적극적으로 진로 준비를 하면 입직 확률이 높아져 이후 첫 직장 및 삶의 만족이 높아지지만, 소극적인 진로 준비를 할 경우 진로 목표 달성이 어려워 장기 미취업 상태 또는 취업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6,7].

특히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고등교육법 제47조)에 두고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4년제 대학생과 차이를 보이는데, 전문대학생은 매 학기 취득해야 할 학점 이수 부담이 높아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부족하고, 취업 준비기간이 짧아 취업부담감이 높다[8]. 따라서 전문대학생의 효과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짧은 재학 기간 동안 학업 적응, 진로 결정 및 판단, 구직 준비를 스스로 해야 하는 전문대학생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9].

또한, 전문대학의 대부분 학과들은 졸업 이후 전공과 직결된 직군으로의 취업을 목표로 한다[4]. 이들이 희망 직군에 입직하여 원활한 직장 적응 및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진로준비 계획과 행동을 이행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에 전문대학생의 구체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용가능성 인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급변하는 고용시장에

서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는 중요하다. 고용가능성 인식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실제 외부 노동시장에서 고용에 대한 안정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인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0]. 즉 고용가능성은 학생이 졸업 이후 갖게 될 직업 혹은 진로에 대한 인식으로 기술, 전공 분야에 대한 중요성, 학교 명성, 노동시장에서 관련 직업 시장의 트렌드와 상황에 대한 것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11,12]. 이러한 고용가능성 인식은 실제 취업을 보장하지 않지만, 개인이 고용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향상시키고[13], 실제 고용가능성에 대한 인지가 높은 대학생은 불확실한 고용상황에서 고용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취업준비에도 적극적인 경향이 있다[10].

또한 고용가능성 인식은 진로준비행동을 증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된다. 예컨대, Hwang과 Lim[14]은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은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정적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Kang과 Bang[15]도 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또한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고용가능성 인식은 직접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다수의 연구가 고용가능성과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심리, 감정, 사고에 영향을 미쳐 행동을 더욱 증진할 수 있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16,17]. 즉 고용가능성을 높게 인지하면 취업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고, 이러한 태도와 사고가 진로준비행동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다[10].

즉, 학생들이 고용가능성을 높게 인지할수록 현재 전공에 대한 상황 판단 및 심리적 상태에 대한 태도 또한 높아질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기관이 학생들의 고용가능성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은 이들의 학업과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18].

이를 기반으로 전문대학생이 고용가능성을 인지할 때 영향을 받게 되는 심리적 태도 요인으로 우선적으로 접근해볼 수 있는 것이 전공만족도이다. 전공만족도란 자신의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와 비교하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을 의미한다[9]. 전문대학생은 전문직업인 입직을 목적으로 전공을 선택하기 때문에 전공만족도가 취업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환경 조성 및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고용가능성과 전공만족도는 밀접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

으로 보고되며[13], 고용가능성 인식이 높을수록 학업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9].

또한, 이때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고용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자기 인식과 함께 진로준비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이 밝혀졌다[4,20-22]. 즉, 고용가능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전공과 학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21]. 그리고 전공만족도가 높은 전문대학생은 진로준비과정에서 고용에 대한 자신감을 잘 관리하고, 자신의 내면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내어 진로준비행동을 증진하는 경향이 있다[9,22].

이를 종합하면 전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데 고용가능성 인식과 전공만족도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고용가능성 인식이 전공만족도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는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 정도를 고찰하고 진로준비행동 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여 전공만족도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생에 위한 취업지원 방안 모색의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전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이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G도에 위치한 2-3년제 사립전문대학교 2곳의 2-3학년에 재학 중인 재학생으로 선정하였으며, 편의 표본 추출법을 사용했다. 2023년 12월 8일부터 15일 동안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전문대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포했다. 설문 당시 연구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조기 취업자, 휴학자, 군 입대자는 제외시켰다.

최소한의 표본 수를 구하기 위해서 G-power 3.1.9.7을 이용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효과 크기 (medium) .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예측 변인 2개의 조건에서 107명의 필요 샘플 수가 산출되었다. 이에 탈락율을 20% 고려하여 134명 이상의 표집을 목표로 하였다. 총 192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으며, 응답이 누락된 10부를 제외한 182부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Table 1. Summary of participant demographic

	Spec.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101	55.49
	Female	81	44.51
Grade	2	108	59.34
	3	74	40.66
Major	Humanities & Social Sciences	45	24.73
	Natural Sciences	17	9.34
	Engineering	86	47.25
	Arts & Physical Education	34	16.68
	All	182	100

또한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생의 취업에 대해 연구한 Cho[23]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계열을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이공계열, 예·체능계열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은 101명(55.49%), 여학생 81명(44.15%)으로 남학생이 많았고, 학년은 2학년 108명(59.34%), 3학년 74명(40.66%)으로 2학년이 가장 많았다. 전공계열은 인문·사회계열 45명(24.56%), 자연계열 17명(9.34%), 이공계열 86명(47.25%), 예체능계열 34명(16.68%)으로 상대적으로 이공계열 학생 비율이 높았다.

### 2.3 연구도구

#### 2.3.1 고용가능성 인식

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은 Rothwell 외[24]의 도구를 Kim[11]이 수정·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Kim[11]은 Rothwell 외[24]의 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 개념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변안하여 '대학생이 갖는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인식'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본 연구는 이 도구가 전문대학생에게 적절한지 판별하기 위해 전문대학에서 진로·취업 교육과 상담 경험이 있는 교육학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한 2인을 선정,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최종적으로 내적 고용가능성(4문항)과 외적 고용가능성(4문항)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8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 방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고용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은 취업 자신감 및 구직에 대한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 및 신뢰를 뜻한다. 외적 고용가능성 인식은 전공에 대한 기업 수요 파악, 사회적 위치, 전망, 고용 기회 등 고용 조건에 관한 인식을 의미한다. 대표 문항으로는, 내적 고용가능성의 경우 '나는 취업 시 면접과 선발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성공할 것이라 자신한다', '내가 노력만 한다면 취업할 수 있는 기업과 직업은 충분한 것이다' 등이 있다. 외적 고용가능성의 경우 '현재 내 전공분야는 기업 채용 수요가 매우 강한 편이다', '내가 추구하는 직업은 노동시장에서 상당히 높은 수요가 있다' 등이 있다.

내적·외적 고용가능성에 대한 요인 분석과 신뢰도검증을 실시한 결과, 탐색적 요인 분석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KMO 값은 0.83로 0.8이상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카이제곱( $\chi^2$ )의 값이 511.78( $p < 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고용가능성 인식은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 외적 고용가능성 인식 2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총 분산 설명력의 경우 43.25% 으로 나타났다. 요인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한 결과,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은 .88, 외적 고용가능성 인식은 .74로 허용치인 0.6이상으로 확인되어 적절한 신뢰도를 보였다.

### 2.3.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Choi[25]의 측정문항을 전문대학생에 맞게 재구성한 An 외[26]의 전공만족도 척도를 사용했다.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방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

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 만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표 문항으로는 '나의 전공 교과목이 나와 잘 맞다', '나의 전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등이 있다.

전공만족도에 대한 요인 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탐색적 요인 분석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KMO 값은 0.87로 0.8이상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카이제곱( $\chi^2$ )의 값이 558.23( $p < 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전공만족도는 6개 문항으로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총 분산 설명력의 경우 43.33%로 나타났다. 요인들의 신뢰도를 파악하고자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한 결과, 전공만족도는 .81로 허용치인 0.6이상으로 확인되어 적절한 신뢰도를 확인했다.

### 2.3.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Kim[5]이 개발하고 Ko[27]에 의해 수정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최근 이루어진 전문대학생 진로준비행동의 선행 연구를 근거로[9], 전문대학생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방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대표 문항으로는 '내가 설정한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점검하고 있고,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내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거나 혹은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등이 있다.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요인 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탐색적 요인 분석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KMO 값은 0.85로 0.8이상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카이제곱( $\chi^2$ )의 값이 352.76( $p < 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진로준비행동은 5개 문항으로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총 분산 설명력의 경우 49.35%로 나타났다. 요인들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도출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은 .82로 허용치인 0.6이상으로 확인되어 적정 수준의 신뢰도를 확인했다.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of Research Instruments

Name of Variable	Factor Loadings	components		Cronbach's $\alpha$
		Eigen-Value	variance criterion(%)	
In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Internal 4	.87	2.88	25.17
	Internal 3	.85		
	Internal 1	.78		
	Internal 2	.70		
Ex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External 1	.81	2.32	18.08
	External 3	.73		
	External 2	.71		
	External 4	.69		
KMO=.832, Bartlett's $X^2=511.783$ , $p=0.00$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3	.89	2.56	43.33
	Satisfaction 5	.86		
	Satisfaction 6	.82		
	Satisfaction 1	.76		
	Satisfaction 2	.74		
KMO=.872, Bartlett's $X^2=558.23$ , $p=0.00$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ehavior 3	.87	2.89	49.35
	Behavior 2	.88		
	Behavior 5	.76		
	Behavior 4	.73		
	Behavior 1	.71		
KMO=.850, Bartlett's $X^2=352.76$ , $p=0.00$				

##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 통계를 수행했다. 또한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고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둘째, 고용가능성 인식,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셋째, 각 변인들 간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넷째, 전공만족도가 고용가능성 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매개효과의 간접 효과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수행했다.

## 3. 연구결과

### 3.1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 관계 분석

측정 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기술 통계 분석 결과, 고용가능

성 인식은 5점 기준 평균 3.19( $SD=.48$ ), 하위요인 중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은 평균 3.23( $SD=.70$ ), 외적 고용가능성 인식은 평균 3.16( $SD=.49$ )이었다. 전공만족도는 5점 기준 평균 3.61( $SD=.55$ ),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은 5점 기준 평균 3.18( $SD=.64$ )로 나타났다. 정규성 분포 여부를 확보하기 위해 왜도, 첨도를 산출한 결과, 왜도는 절댓값 2보다 작게 나왔고, 첨도는 절댓값 7보다 작아서 정규분포 조건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Perceived Employabilit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	2	3	4	5
1	1				
2	.55***	1			
3	.79***	.94***	1		
4	.59***	.57***	.68***	1	
5	.62***	.38**	.54***	.55***	1
<i>M</i>	3.23	3.16	3.19	3.61	3.18
<i>SD</i>	.70	.49	.48	.55	.64
Skew	.38	1.37	1.54	.11	.44
Kur	.53	4.31	4.18	.78	.54

1. In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2. Ex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3. Perceived employability 4. Major satisfaction 5.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p<.001$ , \*\* $p<.01$

측정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변인들 간에는  $p<.01$ ,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은 외적 고용가능성 인식( $r=.55$ ,  $p<.001$ ), 고용가능성 인식 전체( $r=.79$ ,  $p<.001$ ), 전공만족도( $r=.59$ ,  $p<.001$ ), 진로준비행동( $r=.62$ ,  $p<.001$ )과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 고용가능성 인식은 고용가능성 인식 전체( $r=.94$ ,  $p<.001$ ), 전공만족도( $r=.57$ ,  $p<.001$ ), 진로준비행동( $r=.38$ ,  $p<.001$ )과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가능성 인식은 전공만족도( $r=.68$ ,  $p<.001$ ), 진로준비행동( $r=.54$ ,  $p<.001$ )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전공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r=.55$ ,  $p<.001$ ).

### 3.2 고용가능성 인식이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3.2.1 고용가능성 인식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에 따른 전공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5.7%, 회귀모형의 F값은 27.74 ( $p < .001$ )로 유의하였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고용가능성 인식의 하위요인인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 ( $\beta = .39, p < .01$ ), 외적 고용가능성 인식 ( $\beta = .37, p < .01$ ) 순으로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Factor affecting on Major Satisfaction

D.V	I.V	B	SE	$\beta$	t	p
	(Constant)	1.28	.33		3.86	.000***
Major Satisfaction	In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30	.08	.39	3.57	.001**
	Ex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42	.12	.37	3.50	.001**
		$R^2 = .457$ adj. $R^2 = .440$ $F = 27.74(p < .001)$				

\*\*\*  $p < .001$ , \*\*  $p < .01$

D.V.=Dependent Variable, I.V.=Independent Variable, B=unstandardized coefficient, S.E.=standardized error,  $\beta$ =standardized coefficient

### 3.2.2 고용가능성 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9.7%, 회귀모형의 F값은 21.68 ( $p < .001$ )로 유의하였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고용가능성 인식의 하위요인 중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beta = .59, p < .001$ ), 외적 고용가능성 인식은 유의한 영향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 $\beta = .06, p = .586$ ).

Table 5. Factor affecting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V	I.V	B	SE	$\beta$	t	p
	(Constant)	1.16	.40		2.85	.006**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54	.10	.59	5.17	.000***
	Ex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08	.15	.06	.54	.586
		$R^2 = .397$ adj. $R^2 = .378$ $F = 21.68(p < .001)$				

\*\*\*  $p < .001$ , \*\*  $p < .01$ , \*  $p < .05$

### 3.3 고용가능성 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

치는 영향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Table 6). 1단계에서 고용가능성 인식의 내적 고용가능성 ( $\beta = .39, p < .01$ ), 외적 고용가능성 ( $\beta = .37, p < .01$ ) 모두 매개변인 전공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는 내적 고용가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하였지만 ( $\beta = .59, p < .001$ ), 외적 고용가능성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beta = .06, p = .586$ ).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 전공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 $\beta = .29, p < .05$ ) 3단계 조건을 충족하였다. 여기서 3단계의 독립변인인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 ( $\beta = .47, p < .001$ )이 표준화 회계계수의 값은 2단계의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 ( $\beta = .59, p < .001$ )보다 작으므로 나타나서 부분 매개 효과가 있었다. 전공만족도는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고용가능성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며, 전공만족도의 매개를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6. Mediating effect analysis of Major Satisfaction

Variable	Stage 1		Stage 2		Stage 3	
	B	$\beta$	B	$\beta$	B	$\beta$
(Constant)	1.28		1.16		.72	
In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30	.39**	.54	.59***	.43	.47***
	.42	.37**	.08	.06	-.06	-.04
Ex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Major Satisfaction					.34	.29*
$R^2$	.45		.39		.44	
adj. $R^2$	.44		.37		.41	
F	27.74***		21.68***		17.29***	

\*\*\*  $p < .001$ , \*\*  $p < .01$ , \*  $p < .05$

Table 7. Bootstrapping analysis of mediating effect significance of Major satisfaction

Path	B	S.E	95% Boot	
			LLCI	ULCI
In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Major Satisfaction→Career Preparation Behavior	.11	.04	.08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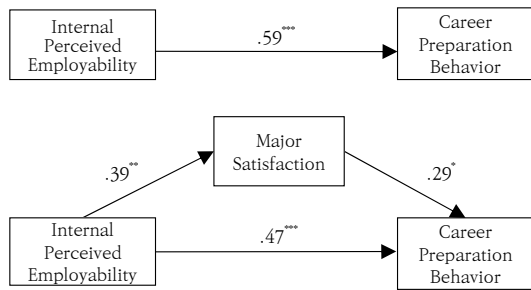


Fig. 1. Mediating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5,000회 표집을 시행하는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Table 7). 이러한 결과 매개효과 계수 95%의 신뢰 구간에서 하한값은 .08, 상한값은 .21로 나타났고, 이 구간에서는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 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생 182명을 대상으로 고용가능성 인식이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고용가능성 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과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은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고용가능성 인식, 전공만족도의 정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 등[13,20]과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의 정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21] 등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과 외적 고용가능성 인식 모두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가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13,15,20,28], 본 연구에서는 전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선행 요인이 고용가능성 인식임을 밝혀냈으며, 이는 고용가능성 인식이 학업 만족도를 높인다는 일부 유사한 국외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18,19]. 즉 전문대학생들의 전공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는 내적, 외적 고용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자기 인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불확실한 고용 상황에서 취업에 성공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내적 확신을 갖고, 전공 관련

산업 동향 이해 및 원하는 직업에 대한 채용 수요 파악 등 외적 고용가능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은 전공 만족도를 고취시킬 수 있다.

한편, 진로준비행동에 대해서는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적 고용가능성 인식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적성, 성취감, 능력으로 대변되는 내적 가치가 진로탐색 활동을 증진시키는 반면, 외부적 요소로 판단되는 가치는 진로탐색 활동과 유의하지 않음을 보고한 Kim[29]의 결과와 유사하다. 반면 보수, 안정성 등 직업의 외형 조건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대학생이 전공 만족과 정보수집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Lee[30]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전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증진을 위해서는 고용가능성에 대한 내적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준다.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서는 내재적 동기가 개인의 행동과 성취에 중요하다고 보는데 [31], 본 연구는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도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이 중요한 내재적 동기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즉 취업성공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며, 개인의 직업적 결정과 준비 과정에 있어서 내적 가치와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교육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에서 내적 고용가능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중시해야 함을 보여준다. 즉 학생 스스로가 진로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전공만족도가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아지고, 높아진 전공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내적 자신감은 전공만족도 증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검증한 Cho 외 [21]의 연구, 전문대학생의 학과만족과 내적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던 Ha와 Han[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문대학생들의 전공만족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는데 [4,9], 전공별 취업 특성이 뚜렷한 전문대학의 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이 소속된 전공 내에서의 개인과 전공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9], 이는 진로준비에 대한

행동력을 증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기 결과는 전문대학생들이 직면한 불확실한 고용 시장에서 자기 확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이 높은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에 더 만족하고, 이는 다시 그들의 진로준비행동을 강화하는 긍정적 순환을 가져온다.

경기침체로 인한 취업난의 장기화는 취업률이 높은 전공 계열의 선호, 높은 연봉을 내세운 대기업 지원 몰림 등의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전문대학에서도 소위 '취업률'을 내세워 취업 잘되는 학과, 시대에 유행하는 전공에 대해 부각하는 등 외부 고용시장에 대한 홍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대학생의 내적 고용가능성 인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즉 고용에 대한 외적 조건도 중요하지만,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고용가능성에 대한 내적 확신이 진로를 준비하는데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Ginzberg과 Super의 진로발달이론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의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현실적 요인을 고려해 진로를 선택하고 구체화한다고 하였다[2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생의 진로 준비 과정에서 개인의 내부적 요소와 교육적 경험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전문대학에서는 전문대학생들이 진로 준비에 있어서 성공적일 수 있도록 내적 동기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문대학에서는 진로준비행동 증진을 위해 학생의 동기와 정서, 관심 직업의 동향 파악 및 정보 수집, 목표설정 및 진로계획의 구체화 등 현실적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고용상황에 대한 명확한 자기 인식과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불확실성을 딛고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에 대한 실천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이와 더불어 전공 이해를 통해 전공·특수 역량을 함양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역할과 확신을 정립하는 교육을 확대·실시하여 전공만족도를 증진한다면[26], 이들의 진로준비행동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즉 학과 차원에서 이들이 진로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1:1 진로상담 및 소그룹 진로 프로그램을 통한 긍정적인 피드백 지지 및 맞춤형 지원 체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고용가능성 인식을 매개 또는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연구가 다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고용가능성 인식을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여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동기와 태도에 관한 복잡한 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며, 진로 발달 이론과 교육 심리학과 같은 이론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둘째, 고용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내적 과 외적으로 구분하여 전공만족도를 매개로 실제 진로준비행동에 이르는 경로를 검증하여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과 전공만족도의 역할을 새롭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전문대학생의 효과적인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강조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취업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정책결정자들이 학생들의 진로 준비와 전공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고용가능성 인식 중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전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가능성에 대한 내적인 확신과 전공만족도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 지원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에 따른 일반화 한계가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생으로 연구 대상이 한정되어, 연구결과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전국단위로 표집을 확대하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전공 계열별 차이를 비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취업 성공률, 이직률 등에 있어 계열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계열 차이에 따른 결과 도출 및 해석이 요구된다. 둘째, 고용가능성 인식에 대한 보다 확장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환경과 코로나19와 같은 현상은 근무 형태, 산업 구조 등의 변화로 이어져 진로와 취업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원격 근무, 깃 경제(gig economy) 등 새로운 근무 형태가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변화된 직업 구조와 고용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고용가능성 인식에 대



한 새로운 구조적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생들의 고용가능성 인식에 대한 실제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문대학생의 배경적 특성을 고려한 변인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변인 선정에 있어 전문대학생의 취업 환경을 고려한 조절 변인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 취업교육 프로그램, 대학 진로 지원 등 환경적 변인을 추가하여 전문대학생의 고용과 취업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 References

- [1] Y. A. Cho, J. E. Jeong, "A Meta-analysis of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Career Development",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0, No.3, pp.131-152, 2017.
- [2] The Dong-a Ilbo. "There is no job I want" Nearly100,000 young people 'just resting' for more than 2 years [Internet]. The Dong-a Ilbo, 2023 [cited 2023, Nov.16]. Available From: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0231116/122201027/1> (accessed Dec. 30, 2023)
- [3] J. C. Lee, A. J. Hong, "Exploring factors on university students' career self-efficacy and employabilit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50, No.3, pp.177-206, 2012.
- [4] B. R. Seo, K. S. Lee,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atisfaction in Major,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tudies",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Vol.27, No.1, pp.87-116, 2018. DOI: <https://doi.org/10.35605/jss.2018.03.27.1.87>
- [5] B. 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97.
- [6] H. S. Oh, J. H. Lee, "The Effect of Career Anxiet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Senior Undergraduates :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Barrier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Life Goal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3, No.1, pp.85-108, 2020. DOI: <https://doi.org/10.3231/JCER.2020.03.33.1.85>
- [7] J. H. Ha, C. W. Han, "Structural Relations Among Junior College Student's Future Time Perspective, Gri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Vol.28, No.2, pp.165-186, 2022. DOI: <https://doi.org/10.29318/KER.28.2.7>
- [8] Y. S. Woo, M. O. Song,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Level, Academic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ollege Life Adaptation of Junior College Freshme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3, No.4, pp.1417-1432, 2022. DOI: <https://doi.org/10.2213/HSS21.13.99>
- [9] J. H. Ha, C. W. Han, "Structural Relations among Junior College Student's Career Stres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Department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6, No.1, pp.207-225, 2023. DOI: <https://doi.org/10.32341/JCER.2023.3.36.1.207>
- [10] S. T. Moon, M. H. Park, "Exploring the Structural Model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Social Support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Self-perceived Employability",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45, No.4, pp.79-104, 2013. DOI: <https://doi.org/10.23840/agehrd.2013.45.4.79>
- [11] J. A. Kim, "A Study on Global Competence, Self-Perceived Employability, and Life Satisfaction of Tourism/Hospitality Related Undergraduate Students: Based on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Korean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Vol.32, No.2, pp. 109-123, 2023. DOI: <https://doi.org/10.24992/KJHT.2023.4.32.02.109>
- [12] H. Bakari, A. Hunjra, "Access to higher education: The source of graduate employability and wellbeing", *Journal of Education and Educational Development*, Vol.5, No.2, pp. 126-145, 2018.
- [13] M. O. Yu, H. Y. Kim, E. M.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Employability in University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20, No.3, pp. 695-718, 2019. DOI: <https://doi.org/10.15753/aje.2019.09.20.3.695>
- [14] J. H. Hwang, S. B. Lim,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Decision Level, Employabil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8, No.2, pp. 87-105, 2015.
- [15] M. S. Kang, E. R. Bang, "The Influence of Undergraduate Students' Self-Directedness and Major Satisfaction up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the Mediating Effect of Employability",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22, No.4, pp. 21-46, 2015. DOI: <https://doi.org/10.15284/kihd.2015.22.4.21>
- [16] I. Silla, N. De Cuyper, F. J. Gracia, J. M. Peiró, H. De Witte, "Job insecurity and well-being: Moderation by employabilit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10, pp.739-751, 2009. DOI: <https://doi.org/10.1007/s10902-008-9119-0>
- [17] I. J. Cho, *4-year college students in Seoul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ttitude and employability: Differences between majors*,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pp.2-3, 2020.
- [18] S. T. Eurico, J. A. M. Da Silva, P. O. Do Valle, "A model of graduates' satisfaction and loyalty in tourism

- higher education: The role of employability”, *Journal of Hospitality, Leisure, Sport & Tourism Education*, Vol.16, pp.30-42, 2015.  
DOI: <https://doi.org/10.1016/j.jhlste.2014.07.002>
- [19] Y. Ma, S. C. Chen, “Understanding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perceived employability in graduate labor market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pp.1-20, 2022.  
DOI: <https://doi.org/10.1007/s10775-022-09567-7>
- [20] J. S. Lee, “The Effects of the Major Satisfaction and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Business Administra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mployability”,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Vol.30, No.2, pp.1-31, 2016.  
DOI: <http://dx.doi.org/10.34274/krabe.2016.30.2.001>
- [21] B. Güneş, S. Acar, “To What Extent Does Perceived Employability Affect Life Satisfaction? Findings from Munzu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Yasar University*, Vol.17, No.65, pp. 117-133, 2022.  
DOI: <https://doi.org/10.19168/jyasar.976855>
- [22] H. J. Cho, B. R. Seo, H. M. Lee “The mediated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relation to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tudies”,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10, No.3, pp.1-21, 2020.  
DOI: <http://dx.doi.org/10.35273/jec.2020.10.3.001>
- [23] J. Y. Cho,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seeking Anxiety and Career Adaptability of College Students in the Post-Corona Era”,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3, No.21, pp.687-701, 2023.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3.23.21.687>
- [24] A. Rothwell, I. Herbert, F. Rothwell, “Self-perceived employability: Construction and initial validation of a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73, No.1, pp.1-12, 2008.  
DOI: <https://doi.org/10.1016/j.jvb.2007.12.001>
- [25] K. O. Choi,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Work Values,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Ph.D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Seoul, Korea, pp.74-75, 2020.
- [26] S. K. An, B. H. Jeong, J. H. Oh,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Occupational Values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Self-Effectiveness: Focusing o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Tax Accounting Education”,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12, No.3, pp.151-173, 2022.  
DOI: <http://dx.doi.org/10.35273/jec.2022.12.3.007>
- [27] T. O. Ko,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Mokpo, Korea, pp.32, 2008.
- [28] E. H. Kim, “The Effects of Satisfaction with Academic Major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n Employability in College Women Majoring in Cosmetolog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27, No.1, pp.138-148, 2021.
- [29] K. A. Kim, “Mediating effect of Occupational Valu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Korean Career-Entrepreneurship & Business Association*, Vol.7, No.6, pp.151-169, 2023.  
DOI: <http://dx.doi.org/10.48206/kceba.2023.7.6.151>
- [30] S. L. Lee, *The Mediation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Occupational Valu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uwon, Korea, pp.42-44, 2021.
- [31] Y. J. Lee, K. H. Lee, “Subtypes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29, No.2, pp.267-287, 2010.

조 은 희(Eun-Hee Cho)

[정회원]



- 2020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23년 3월 ~ 현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관심분야>

직업기초역량교육, 노동시장 성과, 직업교육, 평생교육